

로컬리티 아카이브로서 참여형 노동 아카이브 개발 모형 설계*

현 문 수**

1. 머리말
2. 노동 아카이브와 참여
 - 1) 참여 기능의 필요성
 - 2) 참여 주체 및 역할
3. 국내외 노동 아카이브의 참여 현황
 - 1) International Institute of Social History
 - 2) Social History Portal
 - 3) Bracero History Archive
 - 4) 노동자역사 한내
 - 5) 성공회대학교 민주자료관
 - 6) 종합 분석
4. 참여형 노동 아카이브의 개발 모형 설계(안)
 - 1) 개발 원칙
 - 2) 개발 절차
5. 맺음말

* 이 논문은 2013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3A2054223).

** 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전임연구원(moonsoo925@gmail.com). 주요 논저: 「민간·공동체 아카이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술정보 공유 방향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Vol.13, No.3, 2013; 「지역사 인물 콘텐츠 개발을 위한 연구: 박기중 사례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Vol.36, 2013.

▪투고일: 2014년 6월 20일 ▪최초심사일: 2014년 6월 26일 ▪게재확정일: 2014년 7월 18일

[국문초록]

이 연구는 로컬리티 아카이브의 한 유형으로 참여형 노동 아카이브 개발 모형을 원칙적인 측면에서 제안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우선 문헌 연구와 전문가 면담을 진행하면서 노동 아카이브 구축에 있어 참여 기능의 필요성과 그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특히 산업 노동 아카이브를 중심으로 참여 대상과 참여 유형 등을 살펴보았다. 둘째, 국내외 노동 아카이브 운영 사례를 통해 각각의 참여 방식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지역 산업과 연관된 참여형 노동 아카이브를 개발하기 위한 원칙과 절차와 함께, 절차의 각 단계별 참여 방식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노동 아카이브, 참여형 아카이브, 로컬리티, 로컬리티 기록화

1. 머리말

노동 아카이브와 산업노동(이하 노동) 공동체의 기록화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광건홍은 노동조합, 노동계급의 기록 관리를 정상화함으로써 향후 노동 아카이브의 설립을 기대해 볼 수 있다¹⁾고 주장하였으며, 김경래²⁾와 이영기³⁾도 각각 마산과 창원 지역의 노동조

1) 광건홍, 「노동 아카이브 설립 환경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제20호, 2009, 77-114쪽.

2) 김경래, 「마창 노동 아카이브 설립 및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신라대학교 기록관리학과, 2013.

3) 이영기, 「마산·창원노동조합총연합(1987년~1995년) 기록물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정보·기록관리학과, 2012.

합 기록관리 및 아카이브 설립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개별 노동운동이나 노동자 개인의 경험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늘어나, 노동조합 백서의 형태가 아닌 개별 노동자의 자기 역사쓰기에 대한 결과물⁴⁾도 하나 둘 드러나고 있다.

일찍이 Ketelaar는 링킨의 연설문을 인용하면서 아카이브야말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자유 민주주의 정부의 핵심 요소임을 강조한 바 있다.⁵⁾ 로컬리티 아카이브 측면에서 살펴보면, 그의 주장은 로컬에서 활동하는 주체와 그들의 기록을 관리하고 보존하는 아카이브가 서로 강력하게 소통하며, 로컬 내 활동 주체가 또한 아카이브 활동 주체의 역할까지 수행해야 할 필요성을 뒷받침해준다. 특히 노동 공동체의 경우 산업노동 활동 주체가 아카이브의 구축과 그 기록관리에 참여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활동 주체와 단절된 아카이브 구축은 이미 로컬리티, 로컬 내의 해당 활동 주체가 지닌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미 이러한 ‘참여형 아카이브(participatory archive)’에 대한 논의는 2000년대 후반부터 국내외에서 일부 진행되어 왔으나⁶⁾, 아직 국내에서 참여형 아카이브를 실질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원칙과 그 절차를 제시한 연구는 극히 드물며, 산업노동 아카이브에 필요한 참

4) 신순애, 『열세 살 여공의 삶』, 한겨레출판, 2014; 역사학연구소, 『노동자, 자기 역사를 말하다』, 서해문집, 2005; 유경순, 『같은 시대, 다른 이야기』, 메이데이, 2007; 유경순, 『아름다운 연대』, 메이데이, 2007; 유경순 엮음, 『나, 여성노동자』, 그린비, 2011 등 다수.

5) Eric Ketelaar, “Archives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outh Africa Archives Journal*, Vol. 34, 1992, p.5.

6) Katie Shilton · Ramesh Srinivasan, “Participatory appraisal and arrangement for multicultural archival collections”, *Archivaria*, Vol. 63, 2007, pp.87-101; Isto Huvila, “Participatory archive: towards decentralised curation, radical user orientation, and broader contextualisation of records management”, *Archival Science*, Vol. 8, 2008, pp.15-36; 설문원, 「디지털 환경에서의 로컬리티 기록화 방법론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11권 제1호, 2011, 207-230쪽; 설문원, 「로컬리티 기록화를 위한 참여형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제32호, 2012a, 39-44쪽.

여 기능에 대한 논의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는 로컬리티 아카이브의 한 형태로서 참여형 노동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우선, 문헌 연구와 함께 노동사 분야와 노동 아카이브 분야의 전문가 면담기를 바탕으로 로컬리티 아카이브, 특히 노동 아카이브의 측면에서 참여의 의미와 참여자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국내외 노동 아카이브가 도입하고 있는 참여 기능이나 참여 방식을 대상으로 그 현황을 분석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로컬리티 아카이브의 특성을 지닌 참여형 노동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현황 분석은, 우선 국외 아카이브의 경우 유럽의 대표적인 노동 아카이브로 언급되는 International Institute of Social History를 비롯하여, 유럽 내 노동 아카이브 포털인 Social History Portal, 미국에서 진행된 최대 노동 이민 프로그램인 Bracero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구축된 아카이브면서 대상자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는 Bracero History Archive를 분석하였으며, 국내의 경우 대표적인 노동 아카이브인 '노동자역사 한내'와 '성공회대학교 민주자료관'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문헌연구와 면담,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디지털 환경에서 참여 기능을 갖춘 노동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구축 절차를 제안하였다. 특히 구축 절차의 제안은 공간 중심의 로컬리티 기록화 모형인 spanDoc 모형⁸⁾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참여형 아카이브의 특징을 드러내고자 일부 수정하여 제안하였다.

7) 면담은 노동사, 노동 현장, 노동 아카이브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관련 분야 연구자나 실무자의 수가 많지 않고 노동운동가나 노동조합원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지역 산업과 관련된 노동운동을 꾸준히 연구해 온 부산대학교 신원철 교수, 미디어운동네트워크의 활동가이자 한진중공업 노동조합원들의 구술을 『종이배를 접는 시간』으로 엮은 이 중 한명인 허소희 활동가, 국내 대표적 노동 아카이브인 '노동자역사 한내'의 전문가인 이영기 활동가와 면담하였다.

8) 설문원, 「공간 중심의 로컬리티 기록화 모형의 설계」,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3권 제4호, 2012b, 437-455쪽.

2. 노동 아카이브와 참여

1) 참여 기능의 필요성

기록을 생산한 여러 주체가 로컬리티 기록화에 큰 비중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설문원⁹⁾에 의해 제기된 바 있다. 그는 로컬리티 기록화에 있어 나타날 수 있는 참여의 유형을 1) 도서관과 박물관, 기록관 등의 수집기관 간 협력 유형, 2) 수집기관과 공동체 아카이브의 협력 유형, 3) 수집기관과 개인 간 협력 유형, 4) 공동체 아카이브와 개인 간 협력 유형으로 나누면서도, 아직까지 지역에서 기록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등을 이유로 4개 유형 중에서 개인의 참여를 통한 협력 유형보다 기관과 공동체, 그 중에서도 기관 단위의 참여를 강조하였다.¹⁰⁾

한편, 노동 아카이브 구축 필요성을 언급한 여타 연구에 의하면, 그 구축 과정에서부터 노동조합과 같은 조직 단위 공동체 내의 개별 활동 주체, 특히 개인의 참여 의지가 활발한 것으로 드러나 있다.¹¹⁾

“백서를 만들면서 뼈저리게 느낀 거는 노동자들만의 기록이 있어야 된다는 거, 무엇이든 간에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였어요. 우리는 투쟁을 했는데 그에 대한 결론도 기록도 없다면 그것처럼 슬픈 것도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작업과정에서 설문조사 결과나 어떤 의견이 적힌 기록들을 조금씩 조금씩 찾아내면서 느끼는 기쁨, 희열같은 거는 정말 필요성을 공감하고 들여다보지 못한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¹²⁾

9) 설문원, 「로컬리티 기록화를 위한 참여형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연구」, 2012, 3-44쪽.

10) 위의 글.

11) 이재성, 「대립하는 기억과 지역 노동사: 인천지역 노동조합의 아카이브 구축 전략 모색」, SSK-Networking 1/2기 단독 심포지엄 발표자료, 2014; 이재성, 「지역 노동기록의 의미와 노동사 아카이브: 성공회대 SSK 연구팀의 사례」, 제5회 전국기록인대회 발표자료, 2013, 106쪽.

특히 각 노동조합이나 노동 공동체는 노동 공간과 노동 경험을 공유하며, 공통의 의제 하에서 노동운동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면서도 각 활동 주체는 그 경험에 대한 평가나 해석을 달리 하고 있다.¹³⁾ 이 때문에 주류 아카이브가 노동운동이나 노동 경험에 대해 단편적으로 기록을 수집하고 이에 대해 기술하는 것에서 나아가, 노동운동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기억하고 가족과 지역공동체와 공유하면서도 활동 주체 개인의 관점에서 경험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남겨야 할 필요가 늘어나고 있다. 결국, 노동 아카이브의 경우는 참여에 있어 조직 단위 공동체의 협력은 물론 공동체 구성원 개인의 참여까지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며,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여야만 노동 공동체에 ‘대한’ 아카이브에서 벗어나 노동 공동체의 경험을 다양하게 ‘재현’하는 아카이브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웹상에 구축되는 디지털 아카이브의 경우, 아카이브와 공동체는 물론 개별 공동체 구성원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용이하여 조직 단위와 개인 단위에서 참여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참여 주체 및 역할

이 절에서는 참여형 아카이브에 대한 특징을 중심으로, 참여 주체와 그 방식을 살펴보았다. 선행 연구에서 드러난 참여형 아카이브 특징은 세 가지로 묶일 수 있는데, 첫째, 기록의 ‘분산소장과 통합검색’을 지원하고, 둘째, 기록 해석이나 기술 등의 기록관리 과정에 이용자의 참여를 보장하며, 셋째, 사회·역사·공동체의 관점에서 기록에 대한 맥락화가

-
- 12) 이운재 전 한국통신계약직노조 선전국장; 이재성, 2013, 위의 글에서 재인용.
 13) 이재성, 「우리의 도전도 끝나지 않았다 : 대한마이크로 노동조합 이야기(3)」, 『한내 뉴스레터』, 제48호, 2012, [online], <<http://hannae.org/newsletter/content.aspx?idx=458&sort=&segenre=a&seword=%EB%A7%88%EC%9D%B4%ED%81%AC%EB%A1%6C&page=1>>.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¹⁴⁾ 특히 주류 수집기관(mainstream archive)의 위상을 지니는 아카이브와 자립 공동체 아카이브 사이의 협력을 강조한 런던대의 연구는 아카이브가 공동체를 대상으로 기록의 보관 및 관리, 수집, 큐레이션과 배포, 아카이브 전문기술이나 보존과 디지털화와 기록화 등에 대한 자문과 교육, 전문컨설팅 등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¹⁵⁾ 이처럼 기존의 연구는 개별 이용자의 낮은 참여를 이유로¹⁶⁾ 주로 수집기관과 공동체 조직 단위의 참여와 협력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다수의 공동체 기록 컬렉션을 수집하는 도서관이나 기록관, 박물관 등과 같은 조직 중심의 입장에서나 여러 공동체 아카이브를 아우르는 디지털 아카이브에서의 협력과 참여를 강조하고 있었다.

(1) 참여 주체

한편, 설문원은 “장소에 관한 기억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기록을 올리거나 남길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이 제공된다면” 기존의 연구에서 드러난 참여의 양상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인 단위의 참여가 가능할 것이며, “자발적 활동들이 체계적인 아카이브 구조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면 로컬리티 기록화를 위한 참여형 아카이브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 제언¹⁷⁾한 바 있다.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뉴욕의 911 사건 아카이브가 개인의 관련 기억이나 경험을 이야기나 사진, 동영상, 음성 등의 형태로 남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¹⁸⁾하

14) 설문원, 앞의 글, 2012a; Isto Huvila, “Participatory archive”; Katie Shilton · Ramesh Srinivasan, “Participatory appraisal and arrangement for multicultural archival collections”

15) Mary Stevens · Andrew Flinn · Elizabeth Shepherd, “New frameworks for community engagement in the archive sector: from handing over to handling on”,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 vol. 16, no. 1-2, 2010, pp.59-76.

16) 설문원, 앞의 글, 2012a, 41쪽.

17) 설문원, 위의 글, 2012a, 40-41쪽.

고 있었고, 미국 내 멕시코 이주 노동 프로그램을 기록화한 Bracero History Archive도 노동 이주 당사자나 가족들의 기억을 이야기나 사진, 동영상, 음성 등의 형태로 남기거나 아카이브 내의 기록과 관련하여 자신의 입장이나 의견을 메모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¹⁹⁾하는 등 기관이나 공동체 조직은 물론 개인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문을 열어두고 있었다. 특히, Bracero History Archive의 경우는, 디지털 환경에서 협력 기록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록을 소장 및 수집하는 기관이나 공동체는 물론 당시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는 당사자나 가족, 관련 연구자 등의 참여를 강조²⁰⁾하고 있었다. 두 사례에서처럼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구축되는 로컬리티 아카이브의 경우는 기관이나 공동체 조직을 넘어 개인의 참여 기능 구현이 비교적 용이한 것으로 분석된다.

나아가 노동 아카이브와 같이 개별 활동 주체와 가족이나 지역민 등 주변인의 개별적인 경험과 그에 대한 다양한 이해의 맥락을 의미 있게 담아야 하는 디지털 아카이브의 경우 개인의 참여를 더욱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노동자역사 한내’의 ‘노동자 자기 역사 쓰기’ 사업 계획도 활동 주체 단위의 참여 필요성을 인식한 데에서 비롯된 것²¹⁾이라 할 수 있으며, 부산의 영도에서 진행되어 온 조선 산업 부문의 노동운동의 역사를 보아도 노동자는 물론 가족들의 참여가 두드러지는 특징²²⁾이 있었다. 따라서 디지털 노동 아카이브를 개발할 때에는 수집기관과 공동체 조직은 물론이고 활동 주체를 포함한 다양한 관련자들까지 중요한 참여 주체로 정의함은 물론, 각각의 주체별 참여 방식

18) The September 11 Digital Archive — Share your memories, [cited 2014. 5. 23], <<http://911digitalarchive.org/contribute/contribution>> 참조.

19) Bracero History Archive — Tell your story, [cited 2014. 5. 27], <<http://braceroarchive.org/contribution>> 참조.

20) Bracero History Archive, A practical guide to collaborative documentation in the digital age, [cited 2014. 5. 27], <<http://braceroarchive.org/Collaboration.pdf>>.

21) 한내에서 이영기와의 면담, 2014. 6. 20.

22) 부산대학교에서 신원철과의 면담, 2014. 5. 22.

을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노동 아카이브에 참여하는 주체 외에도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주요 주체도 고려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지적되었다. 특히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그들과의 신뢰가 형성되어야 하는데,²³⁾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은 정부가 주체가 되거나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아카이브가 구축될 경우에 자신들의 기록에 대한 소유권이나 관리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많이 드러내기 때문에 ‘아카이브 구축 주체가 누구인가’의 문제는 향후 노동 활동 주체들의 참여 정도를 가늠하게 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언급하였다.²⁴⁾

(2) 역할

각 참여 주체의 역할에 있어서도 기존 연구들이 제시한 기록 수집 및 축적과 배포, 맥락화, 기록관리과정의 참여는 물론 아카이브 개발까지 포함해야 할 것이다. 우선 참여형 노동 아카이브의 내용인 기록 정보 축적의 측면에서 조직과 개인 모두의 참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수집기관을 대상으로 하여서는,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수집기관들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의 소재를 확인하고 정보를 공유한다면 향후 구축될 노동 아카이브에서 이들 기록 정보를 통합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카이브 구축 과정이나 구축 후 운영 과정에서 기록을 소장하고 있는 다양한 조직과 개인을 대상으로 기록 기증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구축될 참여형 노동 아카이브는 개인이나 조직 단위의 활동 주체가 기증한 기록을 서비스하는 개별 아카이브이면서도 여러 분산 소장된 노동 기록에 대한 정보와 소재정보를 안내하는 포털의 가능성을 포괄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23) 허소희와의 면담, 2014. 6. 5; 이영기와의 면담. 2014. 6. 20.

24) 이영기와의 면담, 2014. 6. 20.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기록관리 과정과 기록의 맥락화 작업 과정에의 참여이다. 수집된 기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평가와 정리 및 기술은 기록관리 전문가는 물론 해당 기록의 생산 맥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기록 생산 공동체, 다시 말하면 노동 아카이브의 경우는 노동 기록을 생산한 활동 주체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개인과 조직 단위의 활동 주체가 적극적으로 이러한 기록관리 과정에 참여할 때 노동 아카이브의 “맥락을 (노동)공동체의 시각에서 재현”²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미국의 1800년대 필사 기록을 대상으로 하는 DIY History 프로젝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DIY History는 참여자들에게 전사(transcription)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기록을 제공하면서 아카이브의 소장물에 대한 관심을 1차적으로 유도할 수도 있을 것²⁶⁾이라 강조한다. 노동 아카이브 구축 초기부터 기록관리 과정이나 맥락화 과정에 개인과 조직 단위 활동 주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힘들다면, 전사 작업을 통해 기록과 아카이브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이러한 관심을 바탕으로 더 적극적인 맥락기술을 포함하는 기록관리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DIY History의 방식은 참여 주체가 디지털화된 기록을 보고 그 내용을 전사함으로써 고문서와 수기 기록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 비교적 관리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노동 아카이브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참여 방법이기도 하다. 전사 기능 이외에도 여러 아카이브에서 기록에 태그 달기(tagging)를 지원하거나 의견을 제시(commenting)하는 등의 방식으로

25) Katie Shilton · Ramesh Srinivasan, “Participatory appraisal and arrangement for multicultural archival collections”; 설문원, 앞의 글에서 재인용, 2010a, 19쪽.

26) DIY History는 Iowa 대학도서관의 주도로 구축되었으며, “Civil War Diaries & Letters Transcription Project”와 함께 클라우드소싱(couldsourcing)의 첫 실험과제로 구축된 아카이브이다. [cited 2014. 5. 22], (<<http://diyhistory.lib.uiowa.edu/>>에서 참조.

기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용자 참여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개인과 조직 단위의 활동 주체의 관심을 단계적으로 유도하고 아카이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아카이브 개발과 관련된 참여의 경우, Huvila는 그의 연구에서 진행한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디지털 아카이브를 개발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는 정기적으로 갱신되는 등 잘 지원되며, 재정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나 전문적인 정보기술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도 표준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기본적인 서버 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서버간 이전이 가능하여야 함을 드러낸 바 있다.²⁷⁾ 참여형 노동 아카이브 역시 개발 소프트웨어의 선택에서부터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참여형의 목적에 부합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독점적 서버나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지양하고 공유와 참여, 협력을 강조하는 바탕에서 다수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개발되고 갱신되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서버 운영 소프트웨어나 데이터베이스 관리 소프트웨어는 물론이고 이미 기본적인 기록관리와 보존이 가능한 ICA-AtoM이나 archivematica, 다양한 콘텐츠 구축이 가능한 omeka, drupal 등이 개발되어 있으며, 국내외에서 이를 활용하여 아카이브를 구축한 사례도 일부이나 존재하므로,²⁸⁾ 아카이브 구축에 있어서도 여러 조직과 개인의 협력으로 개발된 이들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적용해보는 실험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참여 주체 중 하나로 노동 아카이브의 역할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여러 활동 주체의 참여를 받는 아카이브는 아카이브 개발과 관련한 기록화 문서(documentation)에서부터 지속가능한 운영과 관

27) Isto Huvila, "Participatory archive", p.12.

28) 인간과지역아카이브의 마이크로사이트(<http://atom,hmarchives.com/>), <http://omeka,hmarchives.com/>), Florida Memory(<http://www.floridamemory.com/>), Bracero History Archive(<http://braceroarchive.org/>), 유럽 사회사포털(<http://www.socialhistoryportal.org/>) 등이 있다.

련된 정보, 여러 주체들이 별도의 인력 지원 없이도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기타 다양한 정보와 가이드를 제공함으로써 다시 공동체와 협력할 수 있다. Bracero History Archive나 Social History Portal 등의 사례에서도 아카이브 구축과 관련한 정보, 기록 기증을 포함한 개인과 조직의 참여를 지원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카이브 구축 과정과 기록관리 및 수집 과정을 상세히 기록화함으로써 타 공동체가 유사한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과정에 지식을 제공하며, 아카이브의 참여자와도 상호 소통할 수 있는 협력과 연대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3. 국내외 노동 아카이브와 참여 현황

1) International Institute of Social History

‘International Institute of Social History(이하 IISH)’는 1935년 설립된 세계적 규모의 사회사 연구소로, 특히 노동사 분야에 집중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²⁹⁾ 이 기관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련 기록을 수집·보유하고 있으며, 3,000개 이상의 아카이브, 1백만 건 이상의 인쇄물과 함께 상당량의 시청각 자료를 보유하고 있고, 이 분야 최대 데이터센터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³⁰⁾ IISH 소장 기록과 자료는 연구소 내 아카이브 목록을 활용하여 검색할 수 있으며, HOPE(Heritage Of the People’s Europe) 프로젝트를 통해 유럽 내 11개 사회사 연구소 디지털 기록을 통합 검색할 수 있도록 구축한 검색 포털인 Social History Portal

29) About IISH, [cited 2014. 5. 29], <<http://socialhistory.org/en/about>> 참조.

30) IISH Collections, [cited 2014. 5. 29], <<http://socialhistory.org/en/collections>> 참조.

과 유럽의 문화자원 포털인 Europeana, 전 세계 도서관 자료 네트워크인 WorldCat을 통해서도 검색 가능하다. IISH의 기록 컬렉션에 대해서는 컬렉션 단위에서 제목과 포괄날짜나 규모, 이용정보 등을 포함하여 기술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컬렉션별로 간략한 이력정보와 내용정보, 컬렉션 내 아이템 리스트가 포함된 검색도구도 제공하고 있었다.

IISH의 경우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인 Drupal을 이용하여 개발³¹⁾되었으며, 기록 이용자와 기록 보유자가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장 기록과 자료의 이용자의 경우,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또는 플리커 등의 SNS와 이메일을 활용해 IISH 아카이브에서 검색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또한 기록 생산자나 보유자에게는 IISH의 지역별 기록 및 자료 기증 정보를 활용하여 기록과 자료를 오프라인 상으로 기증할 수 있도록 안내³²⁾하고 있었다. 다만, 거의 전 세계를 대상으로 노동사 자료를 수집하고 서비스하고 있음에도 태그 입력이나 기술정보에 대한 의견달기 등 이용자가 적극적으로 아카이브와 소통할 수 있는 기능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아가 기록이나 자료의 기증 역시 오프라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의 기관 SNS 계정을 통해 소통은 하고 있으나 디지털 아카이브 상에서 이루어지는 기록 이용자와 생산 및 보유자 사이의 상호작용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2) Social History Portal

Social History Portal(이하 SHP)은 앞서 살펴본 IISH와 국제 노동사기관

31) International Institute of Social History, [cited 2014. 5. 29], <<http://socialhistory.org/en/colophon>> 참조.

32) Collection-Donations, [cited 2014. 5. 29], <<http://socialhistory.org/en/collections/donations>> 참조.

협회인 IALHI(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abour History Institutions)가 운영하고 있는 유럽 내 사회사 기록 포털이다. 이곳은 유럽 10여 개국 15개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각종 기록은 물론 도서, 브로슈어, 리플릿, 사진, 포스터, 인쇄물, 만화, 소리, 영화, 비디오 등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객체를 서비스하고 각 컬렉션 소장 기관으로 안내함은 물론 축적된 기록정보를 바탕으로 전시도 진행하고 있다.³³⁾ SHP는 컬렉션 단위로 기술 정보를 제공하며, 그 하위에 중단위(mid-level) 기술이나 건(item) 기술로 연결시키고 있는데, 포털에 참여하는 각 수집기관이 이 계층 기준에 맞추어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었다.³⁴⁾

SHP는 아카이브 구축과 관련된 상세한 기록화 문서와, 기록 및 자료의 공유 시 참여 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문서를 위키 페이지를 이용하여 제공하고 있었는데, ‘Social History 도메인에 해당하는 모범실무’, SHP의 모 프로젝트인 ‘HOPE 인프라와 서비스’, ‘HOPE 콘텐츠 제공자(기관 매뉴얼), 위키를 활용한 용어 정의와 저작권 정책 등³⁵⁾이 그것이다. 이처럼 아카이브 측에서는 상세한 수준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비해 개인, 즉 기록 생산자의 참여 기능을 찾을 수 없었고, 다만 이용자가 검색 결과를 SNS 공간으로 공유하는 기능만을 찾아볼 수 있었다. SHP는 기본적으로 유럽 내에서 기록 및 자료를 분산 소장하고 있는 수집기관의 소장물을 대상으로 통합 검색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기관 단위의 참여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SHP 역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인 Drupal을 사용³⁶⁾하여 구축되었다.

33) Social History Portal, [cited 2014. 5. 29], <<http://www.socialhistoryportal.org/>> 참조.

34) Bert Lemmens et al, “The common HOPE metadata structure, including the harmonisation specifications”, 2011, [cited 2014. 6. 8], <http://www.socialhistoryportal.org/sites/default/files/D2_2_Metadata%20Structure.pdf>.

35) The HOPE Wiki, [cited 2014. 6. 4], <http://hopewiki.socialhistoryportal.org/index.php/Main_Page> 참조.

36) Afelonne Doek, “Upgrading the labour history portal”, 2013, p.2, [cited 2014. 5. 26], <http://www.peoplesheritage.eu/pdf/D3_3_Upgrading_Labour_History_Portal.pdf>.

3) Bracero History Archive

Bracero History Archive(BHA)는 수백만에 달하는 멕시코 이주 노동자가 미국으로 건너온 Bracero 프로그램(공식 명칭 : The Mexican Farm Labor Program)에 대한 기록을 모으고 서비스하는 아카이브이다. 이 이주 노동 프로그램은 1942년에 시작되었는데, 2차 대전 중 농업 부문의 저임금 노동력 부족을 염려해 미국과 멕시코 양국이 임시 협약을 맺어 시행되다가, 당시의 생산성 문제와 한국전쟁 등의 영향으로 1951년에서야 의회에서 공식화되었으며 40여 년 전에 종료되었다.³⁷⁾

BHA는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이주 노동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다량의 기록을 제공한다. 이 기록은 신규 이주 노동자 프로그램을 포함해 이민 정책에 대한 현재 미국 내 논쟁과도 연결되면서도 미국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양국의 이민 역사를 알려주는 중요한 기록이라 할 수 있겠다. BHA는 Brown 대학의 Center for the Study of Race and Ethnicity in America, El Paso의 Texas 대학(UTEP)에 위치한 Institute of Oral History, Smithsonian Institution의 National Museum of American History(NMAH), George Manson 대학의 Center for History and New Media(CHNM)의 주도 하에 미국과 멕시코 내 여러 지역 기관과 커뮤니티의 참여를 바탕으로 구축되었으며, 구술 인터뷰 400여 건, 디지털화 문서 600여 건, 디지털 이미지 1,700여 건 등을 서비스하고 있다.³⁸⁾

BHA는, 미국과 멕시코 간 가장 큰 국가적 실험이었음에도 연구자나 미국인, 나아가 미국 내 라틴계 이주민에게도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역사로 존재하였던 Bracero 프로그램을 재조명하도록 한 의미 있는 아

37) About Bracero History Archive, [cited 2014. 5. 27], <<http://braceroarchive.org/about>> 참조.

38) Bracero History Archive, "A practical guide to collaborative documentation in the digital age", [2014], p.1, [cited 2014. 5. 27], <<http://braceroarchive.org/Collaboration.pdf>>.

카이브이자, 협력과 참여로 구축되고 운영되는 아카이브라는 의의를 지닌다. 특이한 점은 이 프로그램과 관련된 기록과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기관의 협력은 물론, Bracero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이민 노동자나 그 가족, 관련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그들이 지니고 있는 기록을 온라인상에서 기증할 수 있도록 하거나 경험을 입력할 수 있는 서식을 마련하여 직접 아카이브 페이지에 기록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구술의 형태로도 경험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³⁹⁾

BHA 자체의 참여, 즉 정보 공유와 공개의 측면도 주목할 만하다. BHA가 구축한 기록 메타데이터를 오픈 액세스를 통해 외부 기관이나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었으며, 참여 주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도구도 함께 제공하고 있었다. 특히 다양한 비디오 튜토리얼을 통해 아카이브 이용자와 파트너 기관들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개별 이용자와 관련하여서는 전반적인 아카이브 이용이나 기록 기증 방법, 이용자별 관심 컬렉션 생성 방법 등을 비디오 튜토리얼을 통해 안내하고 있었다. 아카이브의 파트너 기관과 관련하여서는 수집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와 함께 구술 인터뷰를 수행하기 위한 매뉴얼, 아카이브에서 활용하기 위한 기록 디지털화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메타데이터 사전이나 이용자 가이드, 협력 기록화를 위한 지침, 농부나 국경 경찰 등 대상자별 구술 인터뷰 질문 샘플 등도 함께 제공하고 있었다.⁴⁰⁾

39) Contribute a story or file, [cited 2014. 5. 27], <<http://braceroarchive.org/contribution>> 참조.

40) Resources, [cited 2014. 5. 27], <<http://braceroarchive.org/resources>> 참조.

4) 노동자역사 한내

‘노동자역사 한내(이하 한내)’는 노동운동의 역사를 지켜낸 노동운동가 김종배의 정신을 계승하고 노동운동사의 연구를 위해 김종배추모사업회에서 노동운동역사자료실을 운영하여 노동사 자료들을 수집, 정리, 보존한 것이 모체가 되어 설립되었다. 한내는 수집, 기증, 위탁된 기록을 기반으로 노동사를 연구하는 대표적인 단체이며, 주요 사업 목적을 노동자 역사를 바로 세우고, 노동자들이 노동운동 역사에 대해 알게 하며, 미래의 건강한 노동자 주체를 양성하는 것이라 밝히고 있다.⁴¹⁾

한내의 노동운동역사자료실의 온라인 아카이브는 한내가 소장하고 있거나, 위탁관리하고 있는 문서와 도서, 포스터, 박물, 사진, 영상과 음성 등 10만여 건에 대해 목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중 3만여 건에 대해 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록물은 철과 건 구조로 제공되며, 각 계층별로 간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참여와 관련하여서는, 개인 회원제로 운영되면서도 기록관리과정이나 맥락 기술 등에 개인 회원의 참여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아카이브 홈페이지 내에서 기록 자료의 오프라인 기증을 안내하고 있었으나, 아직 개인 단위의 기증은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현재까지는 한내의 노동운동역사자료실이 주축이 되어 기관 단위의 목록구축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목록을 공유하거나, 기관 단위로 기록물을 수집해 등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⁴²⁾

5) 성공회대학교 민주자료관

‘성공회대학교 민주자료관(이하 민주자료관)’은 한국의 노동운동과 민

41) 한내 소개, [인용 2014. 6. 12], <<http://www.hannae.org/about/about.aspx>> 참조.

42) 한내에서 이영기와의 면담, 2014. 6. 20.

주주의 기록물을 수집·관리·보존·이용·연구하는 특성화된 노동전문기록관이다. 주요 활동으로는 기록관리, 보존, 정책 개발, 연구·편찬 활동, 대외협력,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록관리 부분에서 민주주의 운동 및 노동운동, 진보정치에 대한 기록물들을 수집하고 있는데,⁴³⁾ 1999년 시작된 ‘민주화운동자료관 추진위원회’의 정신을 이어받아 사회·노동운동의 기록물을 후대에 물려줘야 한다는 취지⁴⁴⁾하에 운영되고 있다.

민주자료관은 자체 ‘검색마당’을 통해 간단검색, 상세검색, 분류검색, 내용분류검색 등을 비롯하여 단체사전, 인물사전, 사건사전, 노동·진보정당운동 연표까지 검색 지원도구로 구축하고 이용자를 지원하고 있다. 민주자료관의 소장기록물은 ‘노동·정치운동’, ‘사회운동’, ‘아시아’, ‘구설’의 4개 아카이브 영역으로 구분되며, 각 아카이브 영역 내에서 기록의 출처별 컬렉션을 구성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참여와 관련하여, 민주자료관은 개인과 조직을 구분하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기록을 기증받고 있었다. 노동사나 노동운동, 진보정치운동을 비롯하여 사회운동과 관련된다면 그 유형의 제한 없이 기록을 기증받는다는 원칙을 알리고 있었으며⁴⁵⁾, 기증된 기록의 목록까지 제공하는 자료관 웹 공간을 마련⁴⁶⁾하고 있었으나, 실제 공개된 기증 기록물 목록은 발견되지 않았다.

43) 주요활동, [인용 2014. 6. 10], <<http://www.demos-archives.or.kr/introduction/enterprise.php>> 참조.

44) 연혁, [인용 2014. 6. 10], <<http://www.demos-archives.or.kr/introduction/history.php>> 참조.

45) 기증안내, [인용 2014. 6. 10], <http://www.demos-archives.or.kr/community/contribution_guide.php> 참조.

46) 기증목록, [인용 2014. 6. 10], <http://www.demos-archives.or.kr/community/contribution_list.php> 참조.

6) 종합 분석

이상 살펴본 노동 아카이브의 사례를 (1) 아카이브의 정보 공유와 참여, (2) 개인과 공동체 단위의 기록 생산자와 보유자 참여, (3) 연구자를 포함하는 기록 정보 이용자의 참여, (4) 타 아카이브 등의 수집기관의 참여의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다.

〈표 1〉 노동 아카이브 대상의 참여 현황 분석

| 아카이브 | 아카이브의 정보 공유 | 구축 S/W | 생산/보유자 (개인/공동체) | 연구자/이용자 | 수집기관 (아카이브) |
|-----------------------------------|-----------------------------------|--------|-------------------|---|-----------------------------------|
| Int'l Institute of Social History | 기증안내 | 오픈 소스 | 오프라인 기증 | 검색 목록 공유 (SNS) | - |
| Social History Portal | 아카이브 운영 및 참여 관련 정보자원 제공 위키 페이지 운영 | 오픈 소스 | - | 검색 목록 공유 (SNS) | 15개 기관 기록에 대한 통합 검색 제공(분산소장/통합검색) |
| Bracero History Archive | 참여 관련 정보자원 제공 | 오픈 소스 | 온라인 기증 오프라인 기증 | 검색 목록 공유 (SNS) 내 컬렉션 만들기* 태깅* 기록에 메모 작성* | 수집 컬렉션 공유(분산소장/통합검색) |
| 한네 | - | 자체 개발 | 오프라인 기증 목록공유 | - | - |
| 민주자료관 | 기증안내 | 자체 개발 | 오프라인 기증 | - | - |

* 로그인 후 참여 가능

(1) 아카이브의 정보 공유와 참여

참여형 노동 아카이브는 우선 아카이브 자체가 참여의 특징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앞서 살펴본 국외의 노동 아카이브의 경우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구축되어 있어, 참여 주체로서

아카이브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참여와 공개, 공유의 전제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Social History Portal의 경우는 별도의 위키 페이지를 이용하여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에서부터 운영, 참여 주체의 활동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도큐멘테이션을 제공하고 있어 충분히 아카이브의 정보를 공개하면서 공유하고 있었다.

외부 참여 주체의 기록 기증과 관련하여서는 한내를 제외하면 살펴본 모든 사례 아카이브에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으나, 정보 제공의 수준은 상이했다. IISH나 민주자료관의 경우 오프라인 기증에 필요한 간단한 정보만 제공하고 있었던 것에 비해, SHP와 BHA는 외부 참여 주체들이 아카이브와 소통하면서 기록 정보를 기증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었다.

(2) 개인과 공동체 단위의 기록 생산자와 보유자 참여

수집기관이 아닌 개인과 조직, 공동체 단위의 기록 생산자와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여서는 SHP를 제외한 모든 아카이브가 참여 기능을 제공하고 있었다. 이들의 참여는 주로 오프라인으로 기록과 자료를 기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으로 국한하고 있었으며, BHA의 경우만 디지털 아카이브 상에 마련된 온라인 기증 기능을 통해 기록 수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

한편, 한내의 경우는 노동조합 등의 공동체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기록 목록화 프로젝트로 구축한 기록정보를 계약에 따라 일부 공유하고 한내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서비스⁴⁷⁾하는 방식으로 해당 공동체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었다. 아직까지 내부 기록관리에까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노동 공동체의 현실상, 한내와 같은 접근을 통한 기록 생산자나 보유자와의 상호 참여도 고려해볼만한 접근으

47) 이영기와의 면담, 2014. 6. 20.

로 여겨진다.

(3) 기록 정보 이용자의 참여

아카이브의 기록 정보를 이용하는 주체들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국외 기관들은 목록정보나 검색결과를 이용자의 SNS를 통해 공유할 수 있도록 기능을 마련하고 있었으며, 특히 BHA의 경우는 회원으로 가입한 이용자에게 대해서는 관심 기록을 모아 나만의 컬렉션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며, 기록에 태깅을 하거나 나만의 메모를 기입할 수 있도록 풍부한 참여 기능을 열어두고 있었다. 이에 비해, 국내 노동 아카이브인 한내나 민주자료관은 아직까지 이용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참여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

(4) 수집기관 참여

참여형 아카이브의 핵심 조건 중 하나인 분산소장과 통합검색의 조건의 측면에서 수집기관들의 참여 기능을 살펴보면, 포털형 아카이브인 SHP와 BHA 모두 참여 기관, 즉 타 아카이브와의 협력을 통해 목록을 공유하거나 기록을 기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기능을 포괄하고 있었으며, 이용자들이 이 아카이브에서 분산 소장된 기록 정보를 통합하여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었다. BHA의 경우는 여러 수집기관의 목록에 대해 통합검색을 제공하면서도 자체적으로 기록을 기증받아 서비스하는 등, 수집기관 참여와 개인 단위의 참여를 동시에 수용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IISH나 한내, 민주자료관은 자체 아카이브 소장 기록을 중심으로 목록을 제공하고 서비스하고 있어, 타 수집기관 간의 연계는 드러나지 않았다.

4. 참여형 노동 아카이브의 개발 방안

앞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이 장에서는 향후 참여형 노동 아카이브를 개발하기 위한 방안을 원칙과 절차로 나누어 제안하고자 한다.

1) 개발 원칙

(1)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바탕으로 노동 아카이브를 개발한다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참여형 노동 아카이브는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수용해야 한다. 노동 공동체에 대한 기록을 소장하고 있는 여러 수집기관은 물론이고, 노동 활동의 주체나 주변인까지 참여 가능한 주체로 정의해야 한다. 이는 동일한 공간을 경험한 공동체라 하더라도 그 경험에 대한 기억이나 이해, 해석이 상이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 노동공간 내에서 경험을 공유한 개인이나 조직, 노동운동의 활동 주체인 개인과 조직은 물론이고, 그 가족과 지역민 등 동일한 공간이나 사건과 관련한 경험을 지닌 광범위한 다수의 참여를 전체로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보통의 아카이브 이용자로 많이 언급되는 연구자나 지역 역사가, 관련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로컬 구성원을 참여 주체로 정의하고, 아카이브 개발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참여 지점과 참여 방식을 정의해야 한다.

(2) 점진적으로 참여의 개방성을 확보한다

노동 아카이브에 참여하는 주체를 확보하는 일과 이들에게 어떠한 참여 기능을 제공하는가에 대한 결정은 아카이브 구축 완료와 함께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는 다양한 활동 주체를 참여 주체로 확보하고, 아카이브의 운영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참여 기능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에 따른 경험의 축적과, 여러 주체들의 참여 정도, 참여의 숙련도를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참여의 개방성을 확보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3) 구축과 데이터 축적, 이용의 용이성을 확보한다

참여형 노동 아카이브는 그 구축은 물론 아카이브의 기록 수집과 기록 및 데이터의 축적, 기록 이용이 용이해야 한다. 민간 재정과 운영의 독립성을 선호하는 노동 공동체의 특성상,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나 다수의 전문가 고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소규모의 재정 및 인력을 운영하는 환경에서도 노동 아카이브, 특히 디지털 아카이브를 비교적 쉽게 구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아카이브와 관련하여 대다수의 비기록전문가, 일반 대중까지 기록 기증과 기록 이용의 면에서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데이터 축적과 이용의 용이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할 것이다.

(4) 직접 기록을 수집하면서도 타 수집기관의 참여를 포용할 수 있도록 통합형 아카이브를 지향한다

참여형 노동 아카이브는 수집 중심의 아카이브에서 점차 수집기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크형 아카이브나 아카이브 포털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자체 수집과 기록 콘텐츠 구축을 하면서도, 분산 소장된 기록 정보에 대한 소재 확인도 가능할 수 있는 통합형 아카이브 구축을 지향해야 한다. 특히 지방 단위에서 활동했던 노동 공동체의 경우 잔존 기록이 여러 기관에 분산 소장되는 경향이 크며, 공동체 단위 관리에서 탈락되어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에 네트워크형의 포털 형태나 수집형태 단독

으로는 노동활동의 재현을 충분히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5)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사용을 지향한다

참여형 노동 아카이브는 전 세계 정보기술 전문가들의 참여와 협업으로 개발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구축함을 원칙으로 한다.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기본 정신인 참여와 협력, 공개는 참여형 노동 아카이브의 지향점과도 맞닿아 있다. 또한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기본적인 아카이브 구축이 가능할 뿐 아니라 이미 개발된 추가 모듈을 활용하거나, 내·외부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기존 모듈을 일부 수정해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기록 수집이나 기록관리과정에서의 참여를 넘어 아카이브 개발에 있어서도 광범위한 참여와 집단 지성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통해 참여형 노동 아카이브 개발에 있어서 구축 주체의 참여라는 중요한 한 축을 완성할 수 있다.

(6) 아카이브와 참여 주체의 협업 가능성을 보장한다

참여형 노동 아카이브가 수집 및 공유하는 기록 정보, 아카이브의 활동, 참여 기능과 참여 범위 등은 대상 노동 공동체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필요한 정보기술 제공 등 일정 부분에 대한 통제는 아카이브의 역할이겠지만, 전체적인 참여의 맥락에서는 아카이브 역시 하나의 참여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타 참여 주체와 협력하면서 아카이브를 운영해야 한다.

또한 기록 컬렉션을 대상으로 하여서도 다양한 참여 주체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한다. 집단 지성을 활용하여 기록 컬렉션이 축적될 수 있도록, 다수의 참여 주체가 하나의 기록에 대해 기술하거나 해석을 다는 등의 작업을 함께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7) 아카이브의 지속가능성, 아카이브 내의 자율성 및 아카이브의 정보 공유를 보장한다

단기 프로젝트로 구축되어 운영되기보다는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한다. 또한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아카이브 자체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수집 주체나 공동체 구성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두고 필요시 작업반을 운영하는 등, 온·오프라인 상에서 이들의 활동을 기반으로 아카이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운영 규정을 마련해야 하며, 운영 규정과 관련하여서도 아카이브 내·외부 참여주체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카이브의 운영의 투명성과 정보 공유를 위해서 아카이브 구축은 물론 정보 축적과 이용, 참여 등에 대한 도큐멘테이션을 작성하고 아카이브 공간을 활용하여 공개해야 한다. 구축될 참여형 노동 아카이브는 다양한 참여 주체의 활동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동시에, 아카이브 자신도 기존 노동 아카이브나 향후 구축될 여타 아카이브와 연대하거나 협력해야 하는 중요한 참여 주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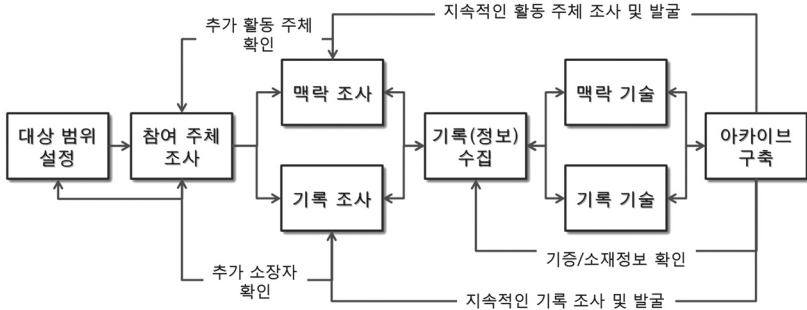
2) 개발 절차

이상의 개발 원칙에 따라 본 연구는 참여형 노동 아카이브가 <그림 1>과 같은 절차에 따라 구축될 것으로 제안하였다. 이는 1) 기록화 대상의 선정, 2) 전략서 작성, 3) 전략의 실행으로 나누어 로컬리티 기록 콘텐츠를 설계할 것을 제안한 spanDoc 모형⁴⁸⁾을 기반으로 하며, 특히 참여형 기록화와 참여형 아카이브의 특징을 반영하여 대상범위를 설정한 이후 참여 주체에 대한 조사 단계를 추가하여 구성된 것이다.

48) 설문원, 앞의 글, 2012b.

본 연구는 개발 절차는 대상 범위 설정에서부터 아카이브 구축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단계를 거칠 수 있도록 제안하였으며, 각 단계는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앞 단계를 다시 밟을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예를 들어, 맥락 조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추가적으로 노동 활동 주체가 드러나거나, 기록 조사 과정에서 추가 기록 소장자가 확인되는 경우 다시 앞 단계인 참여 주체 조사 단계를 이행할 수 있으며, 아카이브 구축 과정 및 일단 구축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활동 주체를 조사하고 기록 조사를 진행하면서 그 이전 단계들을 이행할 수 있다.

(그림 1) 참여형 노동 아카이브 구축 절차(안)



(1) 대상 범위 설정

참여형 노동 아카이브 개발에 있어 우선 진행되어야 하는 첫 단계는 아카이브가 포괄할 대상 범위를 설정하는 작업이다. 로컬의 어떤 노동 공동체를 대상으로 기록화를 진행하고 아카이브를 구축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하고, 그 참여 가능성이나 범위에 대한 예비 조사도 이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대상은 전문가 자문⁴⁹⁾이나 일반인, 내·외부인을 포괄하여 광범위한 의견조사를 진행하여 결정할 수도 있고, 지역에서

진행된 산업부문에 대한 조사나 지역 단위에서 활동하는 노동 공동체와 관련된 연구를 분석하여 결정⁵⁰⁾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부산 영도 지역의 노동 공동체를 대상으로 기록화 및 참여형 아카이브를 구축하고자 계획을 세운다면, 영도구 단위에서 진행되었던 향토지 사업이나 콘텐츠 개발 사업 결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영도 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드러내고 해당 산업과 관련된 노동 공동체에 대한 기록을 예비조사하면서 해당 노동 공동체들을 드러내면, 이후 노동 아카이브의 대상을 설정하고 아카이브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대상 노동 공동체의 범위를 예비 설정한 이후부터는 분야 연구자는 물론이고 해당 공동체와도 직접적으로 상호 의견을 교환하면서 기록 수집이나 아카이브 구축의 범위, 기록의 재현 단위, 참여 주체와 방식 등을 논의하고 결정해나가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노동 공동체는 처음부터 적극적이고 자유롭게 공동체 외부 주체의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음이 드러난 바 있으므로⁵¹⁾, 이 단계에서 충분히 노동 공동체와의 협력 작업에 대한 상호 신뢰 과정을 밟아야만 참여형 노동 아카이브를 의미 있게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2) 참여 주체 조사

대상 범위 설정 단계는 이후 아카이브 개발 및 운영과 관련하여 참여할 주체를 조사하는 단계로 이어진다. 참여형 노동 아카이브의 경우 참여 주체에 대해 면밀하고 지속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만 아카이브 구축과 이후 운영을 보장할 수 있다. 따라서 참여 주체에 대한 조사는 이

49) Richard J, Cox, 1996, *Documenting Localities: a Practical Model for American Archivists and Manuscript Curators*, The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 The Scarecrow Press,

50) 설문원, 앞의 글, 2012b.

51) 허소희와의 면담, 2014. 6. 5.

단계에서 완성되는 것은 아니고 이후 맥락 조사와 기술, 기록 조사와 기술의 단계를 거치면서 새롭게 참여 가능한 주체가 드러나는 경우 다시 이 단계로 돌아와 조사를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다시 아카이브의 대상 범위를 재설정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는 참여 주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진행과 함께 이후 이들의 참여를 조직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참여 주체 조사용 리드 파일’을 아래의 그림과 같이 사례 작성해 보았다. 각 참여 주체별로 아카이브 구축이나 운영, 기록 이용 등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능이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기본 서식(안)과 함께 각 기능별 서식을 별도로 구성하고자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기본 서식(안)과 아카이브 구축용 세부 서식(안), 기록 기증과 수집, 공유용 세부 서식(안)을 사례로 제시하였다.

‘참여 주체 조사용 기본 리드 파일’은 아래의 <그림 2>와 같이 관리번호와 함께, 참여 주체에 대한 이름, 연락처 등의 기본적인 사항, 참여 영역을 가늠하기 위한 전문분야와 활동영역, 예상되는 참여 기능, 조사 대상이 소개하는 타 참여 주체 예상자 정보, 리드파일 작성일, 참고자료, 주기 등의 항목으로 구성하여 내용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아카이브 구축 기능에 참여하는 주체를 대상으로 하여서는 잠재적 참여자인지, 참여가 확정된 주체인지, 다른 참여자를 소개한 주체인지를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아카이브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세부 역할을 기술하고, 관련 참고자료화 함께, 리드 파일 작성 정보와 주기를 기입할 수 있게 <그림 3>과 같은 ‘아카이브 구축용’ 세부 서식을 추가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록을 기증하거나 수집해 공유하는 참여 주체에 대해서는 추가로 소장 기록에 대한 정보와 향후 참여형 노동 아카이브가 관리하고 서비스하기 위해 필요한 저작권 사항에 대한 예비 조사 내용을 기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련 참고자료와 주기, 작성정보를 기입할 수 있도록 <그림 3>과 같은 ‘기록 기증/수집/공유용’ 세부 서식을

제안하였다. 이 외에도 각 참여 주체별로 구분된 참여 기능에 따라 세부 정보를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므로, 이에 필요한 세부 서식을 작성하여 활용하도록 하였다.

〈그림 2〉 참여 주체 조사용 리드파일 서식-기본(안)

| | | | |
|------------------|-----------------|---|---|
| 관리번호 | DLA_2014_0001 | | |
| 참여 주체 조사 서식 - 기본 | | | |
| 참여 주체 | 김OO | 소속 | 000000 |
| | | 개인 전화 | 000-0000-0000 |
| | | 이메일 | |
| 주소 | | | |
| 전문분야 | 노동운동 | | |
| 활동연혁 | 날짜 | | |
| | 주요지역 | 부산 | |
| | 주요활동 | 김OO는 ... | |
| 예상되는 참여 기능 | 기본 (복수표기 가능) | ① 아카이브 구축 ② 기증/수집/기록 공유 ③ 기록 맥락기술 | ④ 정리/평가 ⑤ 의견개시/태깅 ⑥ 기타 (추가 기능 작성) |
| | 추가 기능 | | |
| 관련 참여 주체 소개 | 이름 | 강OO | |
| | 개인전화 | 000-0000-0000 | |
| | 예상 역할 | ② | |
| 작성일/ 작성자 | 최초 | 2014. 5. 12 / 홍길동 | |
| | 갱신 | | 갱신 사유 |
| 참고자료 | | | |
| 주기 | | | |

〈그림 3〉 참여 주체 조사용 리드파일 세부 서식의 예-아카이브 구축용(안)

| | | | |
|-------------------------|---|-------------------|------------------------|
| 관리번호 | DLA_2014_0002_01 | | |
| 참여 주체 조사 서식 - ① 아카이브 구축 | | | |
| 구분 | <input type="checkbox"/> 잠재적참여 <input checked="" type="checkbox"/> 참여 <input type="checkbox"/> 관련 참여자 소개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 세부 역할 | 디지털 노동 아카이브(DLA) 개발용 S/W 공개 - omeka 2.0 세부 참여 기능용 플러그 인 공개 - commenting - scripto ... | | |
| 참고자료 | http://omeka.org/ | | |
| 작성일/작성자 | 최초 | 2014. 5. 12 / 홍길동 | |
| | 갱신 | 2014. 5. 22 / 홍길동 | 갱신 사유 commenting 추가 |
| 주기 | | | |

〈그림 4〉 참여 주체 조사용 리드파일 세부 서식의 예-기록 기증/수집/공유용(안)

| | | | |
|------------------------------|--|-------------------|--------------------|
| 관리번호 | DLA_2014_0001_02 | | |
| 참여 주체 조사 서식 - ② 기록 기증/수집/공유용 | | | |
| 구분 | <input type="checkbox"/> 잠재적소장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소장자 <input type="checkbox"/> 관련 리드 소개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 소장 기록 /저작권 | 노동운동 경험에 대한 구술 / (협약서 작성 예정) 트위터 사진 00점 / (협약서 작성 예정) ... | | |
| 작성일/작성자 | 최초 | 2014. 5. 12 / 홍길동 | |
| | 갱신 | 2014. 5. 20 / 홍길동 | 갱신 사유 트위터 사진 확인 |
| 참고자료 | | | |
| 주기 | | | |

(3) 맥락 조사

참여 주체 조사가 진행된다면 기록과 관련하여 맥락을 조사하는 단계를 진행하는데, 이는 기록 생산자, 기록 내용의 맥락을 확인하는 작업이자, 향후 아카이브가 재현하고자 하는 기록콘텐츠 구조를 결정하는 기초가 되는 작업이다. 노동활동에서 생산된 기록이나 노동활동과 관련된 기록은 ‘1968년 단협투쟁’, ‘1989년 노동자대투쟁’이나 ‘2000년도 희망버스’ 등과 같이 시간에 흐름에 따른 주요 노동쟁의나 사건 등을 중심으로 조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아카이브가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기록의 출처에 대한 조사나 주제 개요서 작성을 통한 맥락 분석 및 조사 방법은 물론, 아래의 <그림 5>와 같이 타임라인별 주요 사건과 활동 주체, 주요하게 생산되거나 생산되었을 기록, 관련 공간 등을 작성하기 위한 ‘기록화 매트릭스’⁵²⁾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림 5> 맥락 조사를 위한 기록화 매트릭스 작성(안)

| 시기 | 사건 | 활동 주체 | 주요 기록 | 공간 |
|-------|--------|------------------------------------|-----------------------|--------|
| 1968년 | 단체협약투쟁 | - 대한조선공사 - 대한조선공사 노동조합 - 부산시 | - 노사협의회 회의록 - 행정조치 | 부산, 영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출처 : 이소연, 집단적 기억의 재구성 전략, 제1회 기록인대회 발표자료, 2009, 5-9쪽, 재구성

기록화 매트릭스를 작성하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주요 사건을 재구성할 수 있는 기본 체계가 마련되어 기록콘텐츠 구축 시 비교적 쉽게

52) 이소연, 「집단적 기억의 재구성 전략」, 『제1회 기록인대회 발표자료』, 2009, 605-612쪽.

기본 구조를 설계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나아가 주요 사건별 활동 주체와 생산 기록을 함께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이후 기록 조사의 기본 자료가 되면서도 다시 참여 주체 조사를 확대해나갈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4) 대상 기록 조사 및 기록 수집

맥락 조사와 함께 기록 조사 단계를 이행하면서 기록의 소재와 유형, 아카이브의 관리 대상 등을 조사한다. 예를 들어, 1968년 부산 대한조선공사에서 발생했던 노동활동을 선정했다면, 노동조합을 비롯해 부산 민주공무원이나 민주노총 부산지부 등이 소장하고 있는 이 당시 기록, 즉 회의록이나 노동쟁의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진행된 노동조합의 가부 투표, 노동조합과 경영진 사이에 오고간 서신, 부산시와 노동조합 사이에 오고간 서신, 타 노조에서 보낸 격려 전보, 사진 등을 조사해야 할 것이다. 또 지역 주요 정보원 중 하나가 지역에서 발행된 신문기사⁵³⁾인 만큼, 맥락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주요 기록에 대한 조사를 심화하면서도 지역신문기사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만약 이 단계에서 기록을 생산했거나 소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체가 발견된다면, 다시 앞 단계인 참여 주체 조사 단계를 반복할 수 있다.

기록 조사와 함께 기록을 수집하거나 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의 경우 소재정보를 확인한다. 특히, 참여형 노동 아카이브는 조직 및 개인 단위 활동 주체가 기록을 아카이브에 기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는 문서나 사진, 음성, 동영상 등의 유형으로 남아있는 기록은 물론이고, 활동 주체의 경험을 담아 구술 등으로 기억을 재현한 기록까지 포괄한다.

53) 설문원, 앞의 글, 2012b.

(5) 기록 기술

앞 단계를 거치면서 확인된 기록정보와 확보된 기록을 대상으로 기술(description)한다. 기록 기술은 기록의 내용과 구조, 맥락을 담을 수 있으면서도 기록전문가는 물론 노동 활동 주체나 가족 등의 참여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기록을 기증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때에도 전문가의 도움 없이 작업을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단순하고 명료하며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기술 요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술 요소의 수 역시 적절한 수준에서 운용해야 한다.

노동활동의 주체의 참여를 강조함에도, 아카이브 구축 초기부터 이들이 직접 기록에 대해 기술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참여 주체들이 기술 과정과 결과물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아카이브가 기록 기술과 관련한 상세한 정보를 참여 주체에게 제공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교육 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기술과 관련하여서 초기에는 각 기록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다거나 태그를 부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구현하고, 점진적으로 참여자들과 작업반을 구성하고 이들이 기술 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함께 초기 참여 단계에서는 사진이나 오래된 필사 기록에 대해 전사(transcription)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아카이브가 소장하고 있는 기록에 대한 이해를 높이면서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대한조선공사에서 벌어졌던 1968년 노동쟁의 시기에 타 산업부문의 노동조합에서 보내온 격려 전보와 같은 기록을 전사할 수 있도록 참여자들에게 제공한다면, 당시 기록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수 있고 기록에 대한 해석을 더욱 풍부하게 덧붙일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전사에 참여했던 노동 활동 주체들이 관련 기록을 기증하거나 관련 참여 주체를 소개하는 등 참여의 방식이나 참여 주체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6) 맥락 기술

맥락과 기록조사를 거치고 확보된 기록에 대해 맥락을 기술하는 단계이다. 기록의 생산 배경에 대한 맥락은 물론이고, 맥락 분석을 통해 드러난 기록콘텐츠를 구현하는 과정에 필요한 맥락(이야기 등)에 대한 심층적 기술이 필요하다. 특히 노동활동에 대한 맥락 기술 작업은 아카이브 내부 기록전문가의 연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영역에 더하여 각 활동을 경험한 주체가 이에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 마련될 때 더욱 풍부해질 수 있을 것이다. 활동 주체의 경험을 맥락 기술로 옮길 수 있다면 다각적이며 생생한 경험이 기본적인 기록 기술과 어우러질 수 있어, 아카이브에서 콘텐츠가 풍부하게 재현될 수 있다. 노동활동 공동체에서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 역시 경험이 축적된 노동 아카이브 전문가의 작업만으로 집적하거나 해석할 수 없는 작업일 것이다.⁵⁴⁾ 활동 공동체나 활동 주체의 해석이 덧붙여질 때 정확하게 기록을 이해하고, 기록을 둘러싼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다.

5. 맺음말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 활동의 주체들이 자신들의 기억을 남기려 시도하고 있다. 노동조합 차원의 백서 만들거나 기록 목록화 작업은 물론, 개인 단위의 경험을 기록하거나 사건 단위 구술집 등의 편찬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 이러한 시도가 지역단위나 산업부문 단위의 노동 아카이브 구축으로 직접 이어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 연구에서는 로컬리티 아카이브로서 참여형 노동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원칙과 절차를 중심으로 제안하였다. 참여형으

54) 이영기와의 면담, 2014. 6. 20.

로 구축되고 운영되는 노동 아카이브는 하나의 노동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여서도 그들의 경험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용하기 위한 것이며, 노동 공동체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고 보여주는 대상에서 나아가 노동 공동체 구성원 각각이 주체가 되어 아카이브에서 활동하는 능동적이며 살아있는 아카이브를 지향한다.

이 연구는 기존의 논의와 사례로부터 참여형 노동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한 원칙과 절차를 드러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향후 후속 연구로 이 연구가 제안한 원칙과 절차를 적용하여 구체적인 노동 공동체를 대상으로 디지털 노동 아카이브를 실험적으로 구축할 것이다. 대상과 구체적인 참여 주체, 참여 방식을 실험적으로 설정하고 본 연구가 제안하는 절차에 따라 참여형 디지털 노동 아카이브를 사례 구축해 봄으로써, 다양한 노동 공동체 단위를 대상으로 이 연구 결과를 적용할 수 있는지 가늠해보고자 한다.

후속 연구의 진행 이후 일련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아카이브 모형에 맞추어 참여형 노동 아카이브의 개념 설계 및 구체적인 기능 설계가 필요할 것이며, 이와 함께 노동 아카이브를 대상으로 하는 이용자 연구도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후속 연구로 진행될 디지털 노동 아카이브 구축과 참여 실험을 계기로 노동 아카이브를 중심으로 하는 참여 주체들에 대한 이용과 참여 연구가 축적된다면, 진전된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 연구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Designing a Model for
Developing Participatory Labor Archives as Locality Archives

Hyun, Moonsoo

This study aims to propose a model for developing participatory labor archives as locality ones. First, it proceeded the literature reviews and expert interviews, so that revealed the needs for participations in building labor archives, participating agents/agencies and the type of participation, especially in industrial labor archives. After examining domestic and foreign labor archives, the way of participation was analysed. Based on the analysis the model for developing participatory labor archives in terms of the principles, the procedure and the participation methods were proposed.

Key words : labor archive, participatory archive, locality, locality documentation